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 아동의 성을 중심으로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Parental Bonding &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Situations : Focused on Children's Gender

심희옥(Hee-og Sim)¹⁾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ifferences in gender, developmental period and parents in terms of parenting, th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in parenting by gender, and th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situations and parenting by gender. The subjects were 498 4-5th grade children and the instruments utilized in this study were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owers, Smith, & Binney, 1994) and the Participant Roles Scale (Sutton & Smith, 1999). The subjects were contacted again one year after the first contact.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were longitudinally quite stable. Girls whose fathers had higher levels of accurate monitoring were more likely to be defenders cross-sectionally. Girls whose parents had more accurate monitoring were less likely to be victims longitudinally.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examining both gender and 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situations.

Key Words : 부모 양육행동(parental bonding), 또래 괴롭힘 3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situations), 가해자(bully), 방관자(outsider), 방어자(defender).

I. 서 론

아동은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또래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동심이나 경쟁심, 그리고 친밀감 등을 형성하기(Hartup, 1989) 때문에 아동기에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 적응의 주 척도가 될 수 있는 원만한 또래관계가 공격성의 한 형태인 또래 괴롭힘 문제로 아동 자신과 가족, 학교 나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¹⁾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ee-og Sim, Child & Family Studies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73-701, Korea
E-mail : simh@kunsan.ac.kr

배우게 된다.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해 공격성을 배운다. 또한 또래에 대한 공격성과 부모의 특성을 관련지은 연구를 보면 또래에게 공격적인 아동의 부모가 애정이 적고, 처벌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감독이 적다(노경선·심희옥, 2004; 도현심·김민정·박보경·황영은, 2005; 오채미·공인숙, 2007; Dishion, 1990; Olweus, 1980). 이처럼 아동이 받은 부모의 양육행동은 나중에 아동의 또래간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거친 양육과 신체적인 학대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세상을 적대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게 하고 적대적인 귀인 편견을 갖게할 수 있고(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인 불안에 영향을 주어 어머니가 애정도 없이 자녀에게 과잉간섭을 하는데 아버지마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을 때 아동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이 클 수 있다(서경현 외, 2008). 이렇듯 아동의 행동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위해 부모의 특성과 아동의 행동을 연결 지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의 한 형태인 또래 괴롭힘을 이해하는데 가족의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Smith & Myron-Wilson, 1998).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을 관련지은 연구를 보면, 부모의 강요적인 요구가 높고 반응성이 낮으면 남녀아 모두 또래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다(Ladd & Ladd, 1998). Stevens, De Bourdeaudhuij와 Van Oost(2002)는 10-13세 아동대상연구에서 가해와 가해/피해 집단에서 가족의 특성이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여 또래 괴롭힘 집단에 맞춰 더 세분화된 부모 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초등학교 5학년과 이들의 어머니 대상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어머니들은 일상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과보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아동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2002). 노경선과 심희옥(2004)의 연구에서는 가해, 피해, 가해/피해와 비관여집단 중 가해/피해 집단에서 아버지가 온정, 수용적이라는 지각이 가장 낮았고, 아버지가 더 거부, 제재적이었으며, 피해 집단은 아버지가 가장 허용, 방임적이라고 지각했다. 가해/피해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온정, 수용이 가장 낮게 지각되고, 피해와 가해/피해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거부, 제재와 허용, 방임이 가장 높게 지각되었다. Loukas, Paulos와 Robinson(2005)은 10-14세 유럽계 미국 아동과 라틴계 아동대상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와 남아 모두의 외현적 공격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라틴계 아동은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여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가 관련이 있는데 특히 나이가 더 든 여아의 경우 이 관련이 더 강했다. 또한 부모와 애착이 잘된 아동은 더 온정적이고 갈등이 적은 친구관계를 형성한다(장휘숙, 2008).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과 Kaukiainen(1996)을 시작으로 또래 괴롭힘 관여자를 가해와 피해로 이분한 시각에서 집단역동의 전체과정으로 또래 괴롭힘을 인식해 오고 있다(Sutton & Smith, 1999). 또래 괴롭힘을 가해와 피해로 양분한 시각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속한 집단의 역동이 고려된 참여자의 역할을 살펴 보아야한다. 더욱이 이런 관점은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이 또래 괴롭힘의 사회적인 생태(social ecology)를 알 수 있게 해주어 또래 괴롭힘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류하는 개인 중심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줄 수 있다(Olthof & Goossens, 2003). 그래서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여러 역할을 고려한 탐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가 199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권준모, 1999) 또래 괴롭힘 관여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세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세분하여 부모 양육행동과 이들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다른 태도로 양육할 수 있어 이런 맥락에서 성별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인지적인 성숙이나 성에 따른 사회화가 달라 성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동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있고 자녀양육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필요하고 부모 양자 간에 일치하거나 조화로운 양육행동이 바람직한 훈육이나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부모 양자 간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롭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 성별 차이, 발달 시기(학년)별 차이 및 부와 모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성에 따른 지각의 차이에 대하여 Block(1983)은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사회화시켜 부모는 남아의 자기 주장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관계 증진적인 행동을 격려한다고 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이수연, 1985), 부모는 신체적

인 별을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행하고(Lytton & Romney, 1991), 어머니는 여아의 자기주장을 더 격려하고 여아에게 더 다정하며, 거부의 위협은 남아에게 더 행한다고 한다(Finnegan et al., 1998). 이연숙(2002)의 초등학교 5, 6학년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남아를 더 통제하고, 노경선과 심희옥(2004)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거부, 체제적으로 지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에서는 어머니가 더 온정, 수용적이고, 아버지는 더 허용, 방임적이라고 지각했다. 또한 자녀 양육 방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김문정(2004)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온정, 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덜 거부, 체제적이라고 지각했다.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연령이나 학년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만 고려한 4-7학년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는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자기주장에 대한 격려를 적게 받고, 애정적인 접촉을 덜 받으며, 강요는 더 받는다고 한다(Finnegan, Hodges, & Perry, 1998). 노경선과 심희옥(2004)의 학령기 전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온정과 수용은 6학년의 지각이 가장 낮고, 아버지의 거부와 체제는 1학년의 지각이 가장 높아 학년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뉘지만, 아버지의 허용과 방임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에서는 학령기 안에서 양육행동 지각의 고저가 뒤섞여 있다.

지각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까지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계수는 .72였다. 이는 한 가정에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상당히 유사함을 말해 준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태도의 독특한 조합이 자녀인 아동의 사회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경현·유제민·안경미, 2008). 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별로 어떠한지 탐색하는 것은 남녀 자녀에 대한 부부간의 자녀양육에 대한 일치정도나 조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또래관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횡단연구와 더불어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종단연구는 횡단연구가 줄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동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영향의 증대나 감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횡단과 단기종단연구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 성별 차이, 학년에 따라 이런 지각이 다른지, 부모 양자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참여자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횡단과 종단적으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과의 관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성별, 발달 시기(학년) 별, 그리고 부와 모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과 횡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과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후기 아동의 경우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고(Berndt, 1979)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예민하므로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절하게 대응할 때 아동은 상당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심희옥, 2005).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Time 1에서는 4, 5학년 498명으로 남아 270명(54.22%), 여아는 228명(45.78%)이고, 나이의 범위는 9-11세이며, 평균 연령은 10.37세였다. Time 2는 1년 후 아동이 5, 6학년 때이다. 종단연구의 대상은 1년 간의 간격으로 결석이나 전학 등으로 11% 정도의 탈락이 있어 450명인데 남아가 241명(53.56%)이고, 여아는 209명(46.44%)이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5.36%, 대학교 졸업 이상이 57.68%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32.91%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50.75%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59%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41.76%였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

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21.01%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12.39%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 양육행동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탐색하기 위하여 Bowers, Smith와 Binney(1994)의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애정이 8문항, 처벌은 7문항, 감독은 6문항으로 총 21개 문항이다. 애정 문항의 예는 “나를 꼭 안아 주신다”이고, 처벌 문항의 예는 “나에게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이며, 감독 문항의 예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이다. 응답은 “전혀 아니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아주 많이 그렇다” 3점으로 아동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답을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 처벌과 감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Time 1에서 아버지의 경우, 애정 .81, 처벌 .74, 감독 .63이고, 어머니의 경우, 애정 .80, 처벌 .73, 감독 .63이며, Time 2에서 아버지의 경우, 애정 .84, 처벌 .70, 감독 .68이고, 어머니의 경우, 애정 .82, 처벌 .74, 감독 .65로 나타났다.

2)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Sutton과 Smith(1999)가 사용한 Participant Roles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가지로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을 나누는데 가해자 4문항, 강화자 5문항, 조력자 2문항, 방어자 5문항, 방관자 4문항, 피해자 1문항으로 총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개개의 문항에 대해 반친구 중 문항의 행동을 하는 동성친구에서 “때때로 그렇다(1점)”나 “자주 그렇다(2점)”에 속하

는 아동을 쓰게 한다. 문항별로 지명 받은 아동의 수에 해당 응답을 맞춰 1점이나 2점을 곱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Cronbach’s Alpha는 Time 1의 경우, 가해자 .91, 강화자 .85, 조력자 .73, 방어자 .81, 방관자 .72이고, Time 2의 경우, 가해자 .90, 강화자 .79, 조력자 .50, 방어자 .74, 방관자 .5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아동은 중소도시인 K시내에서 학교의 소재를 생각할 때 상중하의 경제적인 여건이 고루 섞인 한 개 초등학교 재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번안과정에서 적합한 언어 선택과 아동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연구의 해당 연령 아동과 학교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여 완성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대학생의 도움으로 반별로 실시되었고 응답 후 바로 수거되었다.

자료처리로 연구문제 1은 t -검증, paired t -검증, 연구문제 2는 상관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3과 4를 위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은 평균을 중심으로 상, 하 두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은 각반별 표준화와 표준화 시키지 않는 방법의 중간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점수의 영향을 줄이는 연구대상 전체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utton & Smith, 1999). 예를 들어, 가해자 역할은 가해자 점수의 평균보다 높거나 어떤 다른 역할보다 가해자 역할에서 점수가 높을 때 이 역할을 부여한다. 모든 역할의 평균보다 낮거나 표준화 된 두개의 높은 점수간의 차이가 .1보다 낮으면 역할이 없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역할의 점수와 상관없이 반 아동의 30% 이상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으로 상정하였다(Sutton & Smith, 1999). 연구문제 3과 4는 χ^2 검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성별, 발달 시기(학년)별, 그리고 부와 모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아동의 성별로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

각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양시기에서 아버지의 처벌에 대한 지각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1(4, 5학년)과 Time 2(5, 6학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아버지의 처벌에 대한 지각이 여아 보다 남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발달 시기별 차이는 <표 2>와 같다. 남아의 경우, 발달 시기별로 아버지의 처벌과 부와 모의 감독에 대한 지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1> Time 1과 Time 2에서 부와 모의 양육행동 지각에 대한 아동의 성별 차이

변인	성별	M	SD	t	
Time 1 (4, 5학년)	애정	남	18.46	3.65	1.76
		여	19.04	3.69	
	부	남	9.33	2.69	-4.75****
		여	8.32	2.02	
	감독	남	12.89	2.76	.34
		여	12.97	2.65	
	애정	남	19.73	3.33	.67
		여	19.93	3.55	
	모	남	9.47	2.48	-1.75
		여	9.07	2.57	
감독	남	13.83	2.59	1.47	
	여	14.17	2.51		
Time 2 (5, 6학년)	애정	남	18.49	3.97	.39
		여	18.63	3.84	
	부	남	8.90	2.51	-3.54***
		여	8.19	1.67	
	감독	남	13.48	2.78	-.86
		여	13.26	2.52	
	애정	남	19.80	3.54	.96
		여	20.11	3.28	
	모	남	9.28	2.47	-1.42
		여	8.94	2.50	
감독	남	14.56	2.61	.37	
	여	14.65	2.21		

*** $p < .001$ **** $p < .0001$

<표 2>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발달 시기별 차이

변인		시기별	M	SD	paired t
남아	부	애정	Time 1 18.46	3.65	.14
			Time 2 18.49	3.97	
	부	처벌	Time 1 9.33	2.69	2.55**
			Time 2 8.90	2.51	
	부	감독	Time 1 12.89	2.76	-2.61***
			Time 2 13.48	2.78	
	모	애정	Time 1 19.73	3.33	0.09
			Time 2 19.80	3.54	
		처벌	Time 1 9.47	2.48	.99
			Time 2 9.28	2.47	
		감독	Time 1 13.83	2.59	-3.45***
			Time 2 14.56	2.61	
여아	부	애정	Time 1 19.04	3.69	1.55
			Time 2 18.63	3.84	
	부	처벌	Time 1 8.32	2.02	.26
			Time 2 8.19	1.67	
	부	감독	Time 1 12.97	2.65	-1.97*
			Time 2 13.26	2.52	
	모	애정	Time 1 19.93	3.55	-.75
			Time 2 20.11	3.28	
		처벌	Time 1 9.07	2.57	-.08
			Time 2 8.94	2.50	
		감독	Time 1 14.17	2.51	-2.81**
			Time 2 14.65	2.21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부와 모의 감독에 대한 지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상관없이 Time 2(5, 6학년)에서 부와 모의 감독이 Time 1(4,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 대한 아버지의 처벌은 Time 1(4, 5학년)이 Time 2(5,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행동의 부모간 아동의 지각 차이는 <표 3>과 같다. Time 1(4, 5학년)에서 남녀의 지

각은 부와 모의 애정과 감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처벌에 대한 지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1(4, 5학년)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애정과 감독이 유의하게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에서는 부모 간에 아동의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애정, 처벌, 감독이 유의하게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2(5, 6학년)에서는 남녀의 지각 모두

<표 3> 발달 시기(학년)와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차이

변인		부모	<i>M</i>	<i>SD</i>	<i>paired t</i>
Time 1 (4, 5학년)	애정	부	18.46	3.65	-6.83****
		모	19.73	3.33	
	남아	부	9.33	2.69	-1.21
		모	9.47	2.48	
	감독	부	12.89	2.76	-7.36****
		모	13.83	2.59	
여아	부	19.04	3.69	-4.55****	
	모	19.93	3.55		
Time 2 (5, 6학년)	애정	부	18.49	3.97	-7.07****
		모	19.80	3.54	
	남아	부	8.90	2.51	-2.34*
		모	9.28	2.47	
	감독	부	13.48	2.78	-8.65****
		모	14.56	2.61	
여아	부	18.63	3.84	-7.38****	
	모	20.11	3.28		
여아	부	8.19	1.67	-4.64****	
	모	8.94	2.50		
감독	부	13.26	2.52	-10.46****	
	모	14.65	2.21		

* $p < .05$ *** $p < .001$

부와 모의 애정, 처벌, 감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e 2(5, 6학년)는 남녀아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애정, 처벌과 감독이 유의하게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

의 횡단적인 관계는 <표 4>와 같다. 먼저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이면 어머니도 애정적이고 부와 모의 처벌은 낮고 감독은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처벌적이면 아버지의 감독이 유의하게 높고, 어머니의 처벌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아버지의 감독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어머니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처벌은 유의하게 낮고, 감독은 유

<표 4>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횡단적인 관계

Time 1	Time 1					
	애정	부 처벌	감독	애정	모 처벌	감독
남아(N=262)						
부 애정	1					
부 처벌	-.19***	1				
부 감독	.61****	.12*	1			
모 애정	.64****	-.08	.44****	1		
모 처벌	-.14*	.55****	.03	-.25****	1	
모 감독	.47****	.06	.70****	.60****	.02	1
여아(N=226)						
부 애정	1					
부 처벌	-.16*	1				
부 감독	.63****	.04	1			
모 애정	.68****	-.08	.55****	1		
모 처벌	-.19***	.53****	-.08	-.30****	1	
모 감독	.48****	.01	.69****	.57****	-.07	1

* $p < .05$ *** $p < .001$

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도 애정적이고, 부모의 처벌은 낮고, 감독은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아버지가 처벌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도 처벌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아버지의 감독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어머니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덜 처벌적이고, 감독은 유의하게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종단적인 관계는 <표 5>와 같다. 발달 시기와 부모 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모 양육행동이 지각된다. 흥미로운 부분을 언급하면,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했으면 아버지

의 처벌은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어머니의 처벌도 낮게 지각하나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종단적으로 아버지가 처벌적이라고 지각했어도 어머니는 처벌적이라고 지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아버지를 처벌적이라고 지각했으면 어머니의 감독에 대한 지각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과 횡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집단과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과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아의 경우, 부모 양육행동

<표 5>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종단적인 관계

Time 2 \ Time 1	Time 1					
	부 애정	부 치별	부 감독	모 애정	모 치별	모 감독
남아(N=232)						
부 애정	.53****	-.26****	.28****	.28****	-.06	.19***
부 치별	-.16**	.51****	.02	-.02	.29****	.08
부 감독	.41****	-.06	.39****	.25****	-.01	.24****
모 애정	.38****	-.15*	.22***	.50****	-.14*	.34****
모 치별	-.09	.24****	.01	-.11	.46****	.09
모 감독	.32****	-.08	.34****	.31****	.02	.38****
여아(N=206)						
부 애정	.60****	-.24***	.36****	.40****	-.21***	.26****
부 치별	-.17**	.30****	-.05	-.11	.15*	-.02
부 감독	.46****	-.12	.40****	.33****	-.13	.34****
모 애정	.45****	-.22***	.27****	.50****	-.30****	.32****
모 치별	-.17**	.12	-.03	-.23***	.41****	.05
모 감독	.33****	-.17**	.31****	.33****	-.09	.43****

*p<.05 **p<.01 ***p<.001 ****p<.0001

상, 하집단은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감독 상, 하 집단에서만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여아가 아버지의 감독이 높다고 지각할 경우 여아는 또

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독이 낮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방관자 역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의 횡단적인 관계는<표 7>과 같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표 6> Time 1에서 여아에 대한 부의 감독과 또래 괴롭힘 참여자 간의 관계 () : %

Time 1 \ Time 1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역할무	계	
여아에 대한 부의 감독									
상	13 (9.56)	11 (8.09)	13 (9.56)	38 (27.94)	16 (11.76)	8 (5.88)	37 (27.21)	136 (59.65)	X ² (6)=12.90 p<.05
하	6 (6.52)	4 (4.35)	16 (17.39)	17 (18.48)	22 (23.91)	8 (8.70)	19 (20.65)	92 (40.35)	
계	19 (8.33)	15 (6.58)	29 (12.72)	55 (24.12)	38 (16.67)	16 (7.02)	56 (24.56)	228 (100)	

<표 7>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참여자 간의 횡단적인 관계

	Time 1					
	애정	부 처벌	감독	애정	모 처벌	감독
Time 1						
남아(N=262)						
가해자	.02	.11	.09	-.04	-.02	-.01
강화자	.09	.03	.10	.02	-.05	.04
조력자	.12	.01	.14*	.08	-.09	.06
방어자	.05	.01	.09	.07	-.09	.10
방관자	-.06	.11	.00	-.14*	.04	-.04
피해자	-.04	.10	-.08	-.07	.04	-.07
여아(N=226)						
가해자	-.00	-.05	.04	.00	-.02	-.03
강화자	.05	.00	.09	.04	.04	.01
조력자	-.06	.08	.01	-.05	-.06	-.06
방어자	.01	.06	.10	.06	-.01	.13
방관자	-.20***	.07	-.15*	-.07	-.04	-.10
피해자	-.16*	.02	-.05	-.18**	.02	-.10

* $p < .05$ ** $p < .01$ *** $p < .001$

감독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남아는 조력자 역할에 유의하게 더 참여하고, 어머니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방관자 역할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유의하게 덜 방관자적이고, 피해자가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아버지의 감독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방관자 역할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어머니의 애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피해에 유의하게 덜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과 종단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부모 양육행동 집단과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남아에 대한 아버지의 감독에서만 통계적으로 또래 괴롭힘 참여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아버지의 감독이 높았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 중 방어자 역할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감독이 낮았던 경우에는 방관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의 종단적인 관계는 <표 9>와 같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이거나 감독이 높았다고 지각하면 가해자 역할에 유의하게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부모가 처벌적이었다고 지각하면 피해에 유의하게 더 연루되고, 부모의 감독이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피해에는 유의하게 덜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Time 1에서 남아에 대한 부의 감독과 Time 2의 또래 괴롭힘 참여자 간의 관계 () : %

Time 1 \ Time 2	남아에 대한 부의 감독							계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	역할무		
상	19 (17.43)	15 (13.76)	19 (17.43)	21 (19.27)	16 (14.68)	1 (0.92)	18 (16.51)	109 (45.23)	$\chi^2(6)=16.08$ $p<.01$
하	16 (12.12)	10 (7.58)	12 (9.09)	22 (16.67)	38 (28.79)	7 (5.30)	27 (20.45)	132 (54.77)	
계	35 (14.52)	25 (10.37)	31 (12.86)	43 (17.84)	54 (22.41)	8 (3.32)	45 (18.67)	241 (1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 성별 차이, 발달 시기별 차이와 부모 양자 간의 차이를 살피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

로 탐색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성별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과의 관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9>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참여자 간의 종단적인 관계

Time 2	Time 1					
	애정	부 처벌	감독	애정	모 처벌	감독
남아(N=234)						
가해자	.14*	.10	.16**	.04	-.02	.09
강화자	.10	.07	.08	.02	.05	.08
조력자	.09	.06	.08	.01	.03	.02
방어자	.05	-.06	-.02	.06	-.01	.03
방관자	-.12	.04	-.08	-.05	.01	.02
피해자	-.04	.03	-.07	-.07	.05	-.11
여아(N=207)						
가해자	-.04	-.05	.05	-.04	.06	.08
강화자	-.09	.01	-.09	-.05	.02	-.02
조력자	.06	.01	.07	.05	-.00	.04
방어자	.10	-.02	.08	.13	-.11	.08
방관자	.08	.03	.02	.12	-.04	.06
피해자	-.12	.13*	-.14*	-.12	.15*	-.14*

* $p<.05$ ** $p<.01$

첫째, 아동의 성별, 발달 시기(학년)별, 그리고 부와 모 양자에 대한 지각 차이 중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 지각에 대한 아동의 성별 차이의 경우, 두 시기에서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처벌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다른 양육행동 지각에서는 성차가 없는데 이는 부모들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신체적인 벌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도현심 외, 2005; Lytton & Romney, 1991)와 남아에게 아버지가 더 강압적이라는 연구(오채미·공인숙,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보이는데 아버지는 남아에게 더 거친 양육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발달 시기(학년)별 차이에서, Time 1(4, 5학년)에서 남아가 아버지의 처벌이 높다고 지각하지만, Time 2(5, 6학년)가 되면서 부와 모의 감독에 대한 남녀 자녀 모두의 지각이 커졌다. 이는 자녀의 학년이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변화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려고 하는 것이 늘어남을 말해준다. 이는 또한 나이에 따라 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Finnegan et al.,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부와 모 양자 간의 차이에서 Time 1(4, 5학년)의 남아에 대해 처벌에서만 부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다른 모든 양육행동에서 시기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애정, 처벌과 감독이 남녀 자녀 모두에게 높게 지각되었다. 즉 저학년에서 남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똑같이 처벌적인데 이에 대한 뚜렷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쉽지 않아 저학년에서 왜 부모 간에 차이가 없는지 추후연구에서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남녀아 모두에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애정적이면서 감독과 처벌이 높아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어머니

가 아버지보다 아동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일상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하며 자녀의 생활에 어머니의 세세한 간섭이 클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듯 하다(도현심, 2002). 이는 또한 Bowers 외(1992)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방식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가장 큰 차이가 감독에서 있는데 어머니의 감독이 아버지보다 높았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횡단적인 관계에서 남녀 모두 아버지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면 어머니도 애정이 깊고 부모가 더 덜 처벌적이며 감독은 높다고 지각한다. 아버지가 처벌적이라고 지각하면 어머니도 처벌적이고 남아에 대한 아버지의 감독도 높게 지각한다. 남아가 아버지의 감독을 높게 지각하면 어머니의 애정과 감독도 높게 지각한다. 남녀아에게 어머니가 애정적이라고 지각될수록 처벌은 낮으나 감독은 높게 지각한다. 남녀아 모두에게 부모가 애정이 높다고 지각되면 감독도 높다고 지각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울리는지 등 관심이 많을 수 있음과 관련된다. 아버지는 여아와는 달리 남아에게 처벌적일수록 감독도 높다고 지각된다. 이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감독 차원에서 애정을 갖고 처벌을 더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종단적으로 발달 시기 간과 부모 간에 상당히 안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을 보인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 때 아버지의 처벌은 낮았지만 어머니는 유의하게 덜 처벌적이라고 지각하지는 않았다. 여아의 경우, 종단적으로 아버지가 처벌적이라고 지각했던 것과 어머니의 처벌은 관련이 깊지 않다. 즉 여아의 경우, 아버지가 처벌적이었다고 어머니가 처벌적인 것으로 지각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여아에 대해 처벌적이었을 경우 어머니의 감독은 유의하게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딸에게 차별적인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런 가정은 부모가 다 온정적이지 않아 애정과 관련 깊은 어머니의 감독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녀아 모두 부모 간의 차별과 감독에 대한 지각은 종단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부모가 애정적이었다고 지각하면 차별은 낮고 감독은 높다고 지각한다. 아버지가 차별적이었으면 어머니도 남아에게 차별적이지만, 아버지의 차별은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차별과는 관련이 없다. 어머니가 애정적이라고 지각되었을 때 어머니의 여아에 대한 차별은 적지만 남아에게는 차별이 유의하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는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가 다르게 양육함을 시사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의 양육태도의 독특한 조합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 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 상, 하 두집단과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과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본 것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여아의 감독 지각이 높을 경우 여아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감독이 낮은 경우에는 방관자 역할을 가장 많이 했다. 이는 여아에 대한 아버지의 감독이 중요함을 말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 감독이 높음을 생각해 볼 때 아동의 경우 감독이 곧 애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관리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성차이를 탐색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관계에 아버지와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와 애착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4-5명의 친구가 더 많아(박원모·천성문, 2008)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

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의 횡단적인 관계에서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감독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남아는 가해자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결과는 남아 가해자들이 자아 존중감과 지각된 인기도가 높다는 연구에서 그 해답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심희옥, 2008; Slaby & Guerra, 1988). 이는 본 연구에서 애정과 감독의 관련이 깊음을 생각할 때, 적절한 양육을 하는 원만한 가정에서도 남아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롭지는 않았으나 Bowers 외(1992)의 8-11세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 가해 집단은 부모에게서 다른 집단보다 애정을 많이 받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중고교생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가해에 동조하는 태도를 지녀 이런 행동을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고, 피해는 그 아동이 받을 만한 것,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Bonanno, Henderson, & Hymel, 2002)처럼 또래 괴롭힘의 폐해에 대해 지각을 잘 못하고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아가 어머니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면 방관자 역할에 덜 관여한다는 결과는 이해가 어렵지 않다. 부모의 애정은 자녀에게 인지적인 유능감과 사회적인 수용감을 준다는 점에서 부모의 애정은 아동이 사회정서적으로 원만하게 발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Grief & D'Agostino, 1999) 남아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라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자로 있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여아가 아버지의 감독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덜 방관자적이었으며, 여아가 어머니를 애정적으로 지각하면 피해에 덜 연루된다. 여아의 경우, 부모 양육행동은 방관자, 피해자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는 또한 위의 Grief와 D'Agostino

(1999)의 연구처럼 부모의 애정이 자녀의 원만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함을 말해준다.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 상, 하 두집단과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해보았을 때, 남아가 아버지의 감독이 높았다고 지각할 경우에 또래 괴롭힘 역할자 집단 중 방어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감독이 낮았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방관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한다. 이는 아버지의 감독이 남아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 역할과의 종단적인 관계에서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감독이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1년 후 가해에 더 연루되었다. 이런 결과는 횡단연구 결과처럼 남아에게 또래 괴롭힘 가해가 상당히 긍정적인 개념의 것이 아닌가 한다. 원만한 가정의 아동도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해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는 또한 심희옥(2008)의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에서 친가해적인 남아가 또래로부터 사회적인 거부는 높으나 지각된 인기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던 맥락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겠다. 즉 가해자, 강화자, 조력자 같은 친가해적인 아동은 개인적인 선호 대상은 아니지만 집단에서 인기와 명성이 높아 이들은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여아의 경우, 부모가 처벌적이었다고 지각하면 피해에 더 연루되고, 부모의 감독이 높았다고 지각하면 피해에 덜 연루된다. 이는 여아 피해자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다른 역할자보다 크며 지속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횡단적으로 여아의 아버지에 대한 감독 지각이, 종단적으로는 남아의 아버지에 대한 감독 지각이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 중 방어자가 되

느냐 또는 방관자가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흥미롭다.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괴롭힘을 받는 아동을 방어해 주고 지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아동 뒤에는 가정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 세세하게 신경을 쓰며 관심을 가지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부모의 자녀 활동에 대한 자각이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막는데 중요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일상의 경험에 대해 알리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 안에서 심리적으로 현존(psychological presence)할 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특히 아버지들은 되새겨야 할 것 같다(Stattin & Kerr, 2000).

전체를 요약하면, 남녀아 모두가 부모의 애정이 많다고 지각하면 감독도 높게 지각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독에 대한 지각이 늘어나고 어머니의 애정, 처벌, 감독이 아버지보다 더 많아진다. 발달 시기 간과 부와 모 간에 상당히 안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을 보인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그리고 참여자의 역할 중 방관자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더 커 보인다. 종단적으로 남아가 아버지의 감독이 낮다고 지각하는 것이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아동을 방어자가 아닌 방관자가 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과 발달 시기에 따라 다르고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역할자와의 관련도 성과 시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일부 아동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다양한 지역의 아동 대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자료수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경험을 아동의 지각에만 의존하고 있어 아동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과장하게

나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밝히기 위하여 부모나 교사, 그리고 친구의 보고가 필요하고, 면접 및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 성별 차이, 발달 시기별 차이와 부와 모 양자 간의 차이를 살피고,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탐색하고,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과의 횡,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탐색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와의 관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래 괴롭힘 같은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참 고 문 헌

- 권준모(1999).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자료집**, 29-39.
-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경선 · 심희옥(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 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 도현심(2002).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인간생활환경연구소논집**, 1, 57-71.
- 도현심 · 김민정 · 박보경 · 황영은(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박영신 · 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이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원모 · 천성문(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 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5(1), 41-59.
- 서경현 · 유제민 · 안경미(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7(3), 675-693.
- 심희옥(2005). 또래 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심희옥(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오채미 · 공인숙(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39-149.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숙(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희숙(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1), 69-87.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onanno, R. A., Henderson, N. R., & Hymel, S. (2002, May).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liefs about bullying and harassment. Poster presented at the Vancouver Conference on Aggressive and Violent Girls, Vancouver, BC.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2). Cohes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71-387.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 & Social Relationships, 11*, 215-232.
- Dishi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8). Victimization by peers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4), 1076-1086.
- Grief, M. L., & D'Agostino, N. M. (1999, April). The impact of maternal warmth, protection, and control on children's socioemotional functioning.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ew Mexico.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Ladd, G. W., & Ladd, B. K. (1998).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50-1458.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overt aggression :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Lytton, H., & Romney, D. M.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67-296.
- Olthof, T., & Goossens, F. A. (2003, April). *Emotional and motivational Correlates of playing a particular role in bullying*. Paper presented in the symposium Bullying in 5 continents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lorida.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ur in adolescent boys :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 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5*, 97-111.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4), 665-675.
- Slaby, R. G., & Guerra, N.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 Smith, P. K., & Myron-Wilson, R. (1998).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405-417.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Stevens, V. De Bourdeaudhuij, I., & Van Oost, P. (2002). Relationship of the family environment to children's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6), 419-429.
- Sutton, J., & Smith, P. K. (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5*, 97-111.

2009년 6월 30일 투고, 2009년 8월 28일 수정
2009년 11월 17일 채택